

관념에서 해방시켰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악과의 대결의 일환이라고 볼 때 옳게 파악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와 유리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눌린 자, 포로 된 자들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저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임박한 것을 알리면서 이미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무조건 영접하여 참 인간으로 환원시킨 것인데 이것은 이미 ‘민중과 더불어’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하느님 나라의 선포

(1) 하느님 나라의 선포

“때가 왔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르 1, 15).

이것은 예수 설교의 집약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예수의 설교는 그 나라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나라는 역사의 종말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 설교의 모든 것은 종말적 성격을 띠었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는 단순히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려는 ‘거인’처럼 그것을 저지하려는 악마의 세력과 대결하는 전선에 나서서 싸운다는 확신을 가졌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순한 ‘기대’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나라가 정적(靜的)인 것이 아니고 도래하는 현실(動的)인 것처럼 그의 선포는 그의 행동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관조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하나의 운동가인 것이다.

하느님 나라 도래의 선포는 예수에게서 발단된 것은 아니다. 이미

구약에도 그 흔적이 있고 유다교에서 계속 구체화되고 그 열망이 가속화되었는데, 묵시문학과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특색은 혼탁한 역사와 이에 따른 수난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묵시문학이 하나의 책으로 처음 나온 것은 다니엘서이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에피파네스의 박해 때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로부터 주후 2세기 중엽까지 묵시문학운동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는 가장 비참한 고난의 기간이며 동시에 최후까지 이스라엘을 찾으려는 싸움이 계속되던 시기인데, 그때 나온 글 중 에녹서, 모세승천 기록, 4에즈라서, 바룩서 등이 있고 신약에는 묵시록이 있다. 이것은 모두 수난기의 글들인데, 상징적 언어로써 그들의 원한과 결의, 그리고 소원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단적으로 말하면 억압당한 약소민족의 사무친 한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서의 복수심의 발로만이 아니다. 그것에는 ‘하느님만의 통치’를 갈구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이 뿌리박고 있다. 하느님만이 통치하는 현실, 하느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현실에 대한 염원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는 구체적 염원으로 결정화(結晶化)된 것이다. 이처럼 그 나라는 수난과 함수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묻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갈구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 나라 성격의 단면이라도 알 수 있는 순서가 될 것이다.

크게 말하면 외세의 침범을 받은 약소민족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나라를 갈구했는데, 그것은 망국의 슬픔과 더불어 독립쟁취의 염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계 대제국 로마에 무력으로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할 승산이 없었다. 일부에서 반(反)로마운동이 그치지 않았으나, 그것은 달걀로 바위 때리는 격이었다. 이런 마당에 그 민족 안에 현실주의자가 출현한 것이

다. 그것은 동시에 민족 안에 사상적 분열을 가져왔다.

현실주의자란 점령세력과 협상할 가능성을 가진 위치에 있는 계층이 되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이른바 지도층이다. 예루살렘은 다윗 이래로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였다. 그곳은 바로 유다인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지도층이 모인 곳이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한 시(市)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유다인의 얼굴이며 심장과 같은 상징이며 실제적 중심지였다. 그렇기에 외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상대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한 지역적 의미를 넘어서 실권 그 자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예수 당시에 직접적 영향을 준 로마 치하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협상의 대상이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만 잘 다스리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헤로데를 사이에 놓고 통치할 때나 총독을 두고 직접통치할 때나 언제나 예루살렘을 의식하고 ‘존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신성불가침의 성도(聖都)로 인정하여 역대의 통치자들은 무기를 가진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며, 세금의 10분의 1을 성전에 쓸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하고, 또한 성전의 장(대사제)에게 군사와 경제 문제를 제외한 제반 권한을 주었으며, 국민회의의 장의 자리를 주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때때로 이스라엘 정부의 대표로 각듯이 우대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종교적 규율’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우대는 저들의 대(對)로마 충성심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로마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와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절대시하는 유다 지도층의 감정을 역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그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상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빼기는 것을 볼 눈이 어두웠을 뿐 아니라 그 현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

이다. 저들은 기존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큰 것들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외세로부터 특권을 얻은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만 사수하면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마침내 하느님 나라의 도래마저 교리상으로만 인정할 뿐 사실상 무관심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직결된 메시아운동에 대해서도 경계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 운동을 저지하는 적이 되기까지 했다.

이에 분개한 집단들이 탈(脫)예루살렘파로 결속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반(反)예루살렘적이었다. 그들은 일차 목표를 예루살렘의 어용 세력을 숙청하는 데 두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바로 이들이 종말론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대망을 품었을 것이고 일차적으로 주류에서 밀려나고 집권자와 타협할 수 없는 이들이 그 나라의 도래를 갈구했을 것이다.

유다 사회에는 유다 전쟁 발발 훨씬 이전부터 가난한 자나 억압당하는 계층에서 종말사상이 강했다는 많은 사료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어록에는 “돌을 들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발견하리라. 나무를 베게라. 나는 거기 있으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와 노동하는 자의 관계를 표시한 내용이다. 탈예루살렘파의 에세네문서(쿰란)에는 “가난한 자들이 정의로 심판하여 왕과 권력자들에게 비웃음과 멸시가 있을 따름”이라는 하느님 나라와 관련한 예언이 있다. 이처럼 그 나라의 도래와 가난하거나 눌린 계층과 연결시킨 기록이 많은데, 메시아 대망과 하느님의 직접통치를 갈망하여 목숨을 내건 켈랑당원들이 거의 궁핍한 피압박계층이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경향이 구체적 운동으로 응결되었다는 본보기이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가장 갈망한 계층이 바로 누구였냐는 것은 반드시 사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는데 그 장소

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래아라는 것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그곳은 바로 켈롯당의 본거지요, 소외자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이며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팽배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나라가 이제 올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안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박했다고 했다. 우리말로 ‘가까웠다’고 번역된 단어인 ‘enggiken’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여하간 예수는 막연한 장래 일을 말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하느님 나라를 전파 하라고 하면서 몸에 걸친 의복 한 벌 외에 어떤 것도 자기 삶의 보장을 위해 지니지 말라(루가 9, 1~5)고 준엄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일 반적인 의미의 고행주의를 모르는 예수로서는 특이한 언행이다. 결국 그 나라의 도래가 이미 여유 없이 문전까지 도래했다는 표시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나라의 도래를 시간적으로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현실화되었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므로 ‘요때부터 다’라고 점찍듯 하는 판단기준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묵시문학과 상통하면서도 그것과 다른 점이다. 묵시문학에서는 그날의 도래의 때를 계산하고 그날이 올 때의 징조와 나아가서 그날이 왔을 때 세계에 일어날 이변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사변적 서술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예수에게서는 그런 사변적 서술을 볼 수 없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보면 그 특이성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하느님 나라 비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비유형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관서

에 ‘……과 같다’라는 형식으로 직접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이 11개이며, 비유 다음에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임을 밝히는 것이 2개로서, 이를 합치면 13개나 된다. 또한 그 나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심판, 심판자(인자)의 도래 등 그 나라의 도래와 직접 관련된 비유도 8개나 된다. 이것은 전체 비유 39개 중(J. 예레미아스의 계산에 따르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비록 그 나라를 ‘무엇과 같다’는 전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나라 자체를 설명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나라의 도래라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폭로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를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비유를 대충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자라나는 씨(마르 4, 26~29)와 누룩(루가 13, 20~21),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마르 4, 30~32)이다. 이 셋은 ‘자란다’ 또는 ‘발전한다’는 내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씨를 심으니 싹이 돋고 이삭이 되고 낱알을 맺는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풀씨인데 풀 중에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가장 큰 풀이 된다. 작은 누룩을 많은 가루 속에 넣었더니 그것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등 모두 자라고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학자들 중에는 이 셋은 모두 그 나라가 역사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이들과, 그 나라의 도래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인데 크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는 그 대조에서 ‘놀라움’의 의미를 읽으려 하고, 농부가 ‘그것(씨)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 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둘째 번 해석도 결코 처음 해석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록 역사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자라는지는 인간에게 가

려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반드시 상충되지는 않는다. ‘자란 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역사의 어떤 구체적 현상을 그 발전의 과정으로 일치시키거나 또는 역사를 분석해서 그 발전법칙을 찾아내듯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동시에 그 나라의 도래는 세계 역사의 변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단언도 옳지 않다.

둘째는 그 나라는 무조건 개방되었다는 것이다. 잔치 초대 비유(루가 14, 16~24)와 포도원 일꾼의 비유(마태 20, 1~6)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회를 마련하고 초청장을 많이 보냈다. 초청장을 받은 자들은 기득권자들이다. 그러나 저들은 각기 소유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 이들은 ‘나는 으레 그곳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자부하는 계층이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저들에게 열린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저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바로 예수의 제자로 자부하며 ‘자명성’ 안에서 탄생을 피우는 자들일 수도 있다. 그 주인은 그때부터 잔치의 개방성을 확실히 한다. “어서 동네 큰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뚝발이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큰길이나 울타리 밖에 나가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하느님의 나라는 개방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에 그것은 어떤 계층에게는 닫힌 것이 되고 어떤 계층에게는 열린 것이 된다.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열렸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것에 응한 자들은 한결같이 버림받고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이다. 저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저들은 소속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삶의 계획이 없다. 거리나 골목에서 배회하는 것은 무슨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거처가 없기 때문이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어서이다. 그러니 삶의 계획이 있을 수 없고 하루하루 양식을 얻는 데 급급할 뿐

이다. 더욱이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부르라고 한 것은 바로 거지들을 말하는 것이다. 저들은 한 도시나 성전 또는 부자의 담장 밖에 모여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톨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포도원 농부와 일꾼 애기도 이와 성격이 같다. 그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할 일 없이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주기로 한다. 게다가 하루 다섯 차례나 다른 시간에 나가서 일 없이 하루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부른다. 맨 나중에는 일할 시간이 거의 없는 해질 무렵에 나가서 일꾼을 부른다. 그러고는 사람의 제산을 뒤엎고 맨 나중에 부른 사람에게나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루의 생활비를 지불한다. 바로 여기에 그 나라의 개방성이 있다. 그것은 일한 성과에 매이지 않는 그 주인의 배려이다. 그리고 그가 배려한 대상들은 거리에서 헤매는 계층이다. 놀라운 것은 그 나라는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한 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예수가 오신 목적으로 루가 편자가 인용한 선언(루가 4, 18~19)이나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보도된 예수의 행태에서 반영되는 내용과 꼭 같다(루가 7, 22).

셋째 부류는 그 나라는 곧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의 비유에서도 비록 그 나라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었으나 그 나라에의 초대가 사람을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도래와 함께 최종적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이야기(마태 13, 47~48)와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마태 13, 24~30)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그물을 들어올릴 때까지 쓸모 없는 고기가 다른 고기와 섞여 있다. 그런데 주인은 그물을 육지에 올리자 그 두 가지를 가려내어 쓸모 없는 것은 내버린다. 이처럼 추수 전까지는 가라지가 곡식 사이에 끼여 있으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골라서 아궁이에 던져버리게 된다. 이것은

묵시문학에서 볼 수 있는 심판의 사변적 서술이 아니고, 극히 단조로우나 그 나라의 도래와 심판은 불가분하게 연관되었음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넷째 부류는 셋째의 것과 상통하나 단순히 그 나라의 도래의 상황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명령)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달란트(루가 19, 12~27), 악한 종(마태 18, 23~35), 보물을 발견한 자(마태 13, 44)와 진주를 발견한 자(마태 13, 44)의 비유 등이 그런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자본금을 주어 장사를 시키고 여행길에서 돌아와서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실제로 있었던 경우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헤로데 등이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강제로 자기 왕권을 승인시킨 경우가 그런 예이다. 그때 그가 그에게 불충했던 자들을 잔인하게 벌을 내린 것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했을 수 있다. 요는 사람에게 각기 주어진 임무와 그것을 해낼 만한 재능도 주어졌는데, 그 나라는 바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심판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 거부의 재무 담당자가 막대한 빚을 졌다. 주인은 준엄하게 다스리다가 무조건 용서한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는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자에게 자기가 용서받은 자세로 대하지 않고 옥에 처넣으므로 그는 다시 체포 투옥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나라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며 바로 그러기에 이웃에 대한 행위가 이에 상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보물이나 진주를 가질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들을 아낌없이 팔아버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비유들은 그 나라 앞에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으로 ‘희생’을 요구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본 비유들은 하느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면서도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마지막 경우와 같이 모두 그 나라의 도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이냐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그 나라의 청사진을 얻고 싶은 본능이 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 나라가 정말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이라면 어떻게 낡은 질서를 설명하는 언어로 그 나라를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는 그 나라를 철저한 새 현실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낡은 언어로는 서술하기가 불가능하며, 동시에 어떤 측정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5. 예루살렘의 예수

1)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일명 다윗의 왕도이다. 그것은 다윗에 의해 왕도가 되었고 그후 다윗왕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유다사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후부터 유다인은 모든 것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고했다.

다윗은 유다 민족의 왕권을 확립한 위인이다. 그의 ‘위업’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처음 왕권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한 반론이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 대장이나 오십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